

## 중앙교회 가정예배서

인도자 : 가족 대표

### 사도신경 .....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 찬 송 ..... 366장 ..... 다같이

1.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 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앞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2.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앞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3.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소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앞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 기 도 ..... 가족 중

### 성경봉독 ..... 요한복음 9장 1-5절 ..... 인도자

### 설 교 .....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 인도자

### 기도(합심기도) ..... 설교자/다같이

1. 온전한 믿음,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고 부흥하게 하옵소서.
2.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3.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 주기도문 .....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요한복음 9:1-5

지난 주일은 장애인 주일이었고,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었다.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분도 있고, 질병이나 사고를 당해 중도에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있고, 연로하셔서 장애를 가진 분들도 있다. 비장애인도 모두 잠재적 장애인이다. 세상에는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고, 착한 사람에게 재앙이 임하는 것이다. ▶제자들이 길을 가다 날 때부터 맹인 된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라고 물었다. 제자들은 그가 맹인 된 것은 죄 때문이라고 결론을 이미 내려놓았다. 다만 죄의 소재로 부모인가 본인인가를 질문하고 있다. 당시의 종교와 문화적인 상황 안에서 된 것이지만, 아직도 이런 편견이 우리 사회에 남아 있다. 재난을 당한 읍에게 와서 논쟁했던 세 친구는 “어떻게”가 아니라 “왜”라고만 묻는다. 이것은 명백한 ‘희생자 비난하기’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놓고, 도와 줄 생각은 안 하고, 그에게서 문제의 원인을 찾는 무자비한 행동이다. 육체적 고통 외에 정신적이며 영적 고통을 가중시키는 행위다. 이렇게 질문하는 의도는 자기들이 그 사람을 돕지 않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인지 모른다. 이렇게 당사자에게서 문제를 찾고, 과거에서 원인을 찾는 것은 개선의 가망성이 없다. ▶그러나 예수님은 파격적인 발언을 하셨다. 장애와 고통을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 지으셨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 즉 이 장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장애나 고난은 저주가 아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연이 아니라면, 사탄이 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나님 나라를 더욱 사모하게 만든다. 나의 고난은 목적이 있다. 그것을 도구로 사용하여 내 안에 영원토록 선한 것을 이루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대속적인 고난도 있다. 나 대신 그가 아프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규정하셨다. 눈이 볼 수 있는 것은 빛을 통해 보는 것이다. 빛이 없는 캄캄한 밤에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볼 때 바로 볼 수 있다. 이 사건은 육신 치유를 통해 영적 진리를 깨우쳐 주시려는 의도가 담긴 이적 비유다. ▶이번 치유 사건은 맹인에게 믿음을 주시게 위함인지 다른 때와 달리 물질적 수단이 동원되었다. 예수님의 침과 진흙, 그리고 실로암 못의 물이 사용되었다. 예수님은 그에게 가서 씻으라고 하셨고, 이에 맹인은 가서 씻고 보게 되었다. 예수님의 치료 행동과 맹인의 순종 행위가 협동하여 이적을 만들어 냈다. 이로써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맹인을 통해 드러나게 되었다. ▶이제 이 맹인은 익명의 제자가 되었다. 그가 고침을 받은 것을 놓고 사람들의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치유받은 맹인은 자신이 과거에 맹인 되었던 사람이라고 증언했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고쳐 주셨다고 고백했다. 자기를 ‘모세의 제자들’이라고 자부했던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맹인이 고침 받은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어떻게든 예수님의 불법 행위를 캐내려 유도 질문했다. 하지만 맹인은 예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이 논쟁 과정에서 예수님에 대한 맹인의 인식이 깊어졌다. 처음에는 “어떤 사람”, 다음에는 “선지자”, 다음에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분”, 다음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 다음에는 “주”라고 고백했다. ▶예수님의 개입은 역전을 만들어 낸다. 보던 자는 보지 못하고 보지 못하던 자들은 보게 되는 것이다. 이 사람은 육적 맹안과 함께 영적 맹안을 고침받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까지 나아가게 되었다. 본다고 자부하는 사람들보다 보지 못하던 그가 더 큰 복을 받은 것이다.